때는 그 넘는 온도를 30℃에서 빼서 최고 온도로 보고 계산한 GDD와 적산온도로 계산한 GDD가 등숙기간의 GDD의 변이가 적었으며 등숙기간을 GDD로 표시하면 일반품종은 출수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보였으나 통일계는 이앙이 늦어질수록 GDD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을 출수가 늦어지면 입중이 낮아지고 등숙일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GDD를 이용하면 같은 품종일때 재배환경에 관계없이 생육기간을 일정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이앙에서 출수, 출수에서 성숙까지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GDD를 계산해야 하며 알맞은 기준온도도 연차에 따른 변이가 있는듯 하다.

## 9. 水稻品種의 株內混植에 依한 收量安定性의 檢討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柳鍾遠*, 李浩鎭

水稻品種을 品種別로 單植株 5處理를 만들고 單植株의 構成品種을 1本씩 取하여 混植株를 만들어 單一品種栽植 各 處理와 混植處理間에 生育 및 乾物生產과 收量 및 收量構成要素를 比較하고 病에 관한 이병정도와 混植株內의 경합양상을 調査하여 水稻品種의 單一品種栽培와 混植栽培의 비교로서 收量安定性을 검토하였다.

① 生育中期의 混植株의 生育과 乾物量은 單植株 平均보다 좋은 편이었다.

② 목도열병 이병율은 진흥이 16 %로서 아주 높은 이병율을 보였으며 混植株는 미네히까리 밀양23, 풍산 남풍과 비슷한 이병율을 보였으며 문고병은 degree 6.2정도의 높은 이병율을 보였으나 混植株는 미네히까리 밀양23, 풍산, 남풍과 비슷한 이병율을 보였다.

③ 수량은 남풍≒밀양23 > 混植株≒미네히까리 > 진흥≒풍산의 순이었고 單植株의 各 品種의 平均과 混植株는 수량의 차이가 없었다.

④ 수량구성요소는 混植株는 이삭수를 많이 確保했으나 반면 영화수는 적었고 등숙률에 있어서 다소 높았으며 1,000 粒중은 차이가 없었다.

⑤ 混植株內에서의 경합양상은 生育中期에는 진흥, 밀양23호, 남풍은 경합력이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미네히까리 풍산은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收穫期에 경합양상은 진흥 밀양23호, 남풍은 경합력이 컸으나 풍산은 약하였다.